

후 공장 2개 도시 광주 미래차 전환 속도 낸다

전기차 국민경차 상용화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에 선정
2027년 보급형 경형 EV 개발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도전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완성차 공장 2곳을 보유한 '자동차 대표 도시' 광주시가 민선 8기 들어 지역의 미래가 걸린 '미래차 선도도시 구축' 작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주요 국가사업 유치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100만평 규모의 미래차 국가산단을 유치한 데 이어, 타 자치단체와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미래차 전환에 필수적인 'EV (전기차) 핵심부품 개발' 국비 지원 사업까지 따내는 데 성공했다.

광주시는 내진김에 미래차 대전환을 위한 마지막 퍼즐인 '자동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까지 유치해 국내를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미래차 대표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김용승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20일 시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최근 2023년 산업부 신규 국비지원 과제인 'EV국민경차 상용화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사업은 국내의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장의 팽창 속에 전력 기반 경차에 필수적인 고강도 차체, 새시 개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지역 부품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광주시는 공모 사업 유치를 따라 올해부터 5년간 총사업비 145억원(국·시비)을 투입하고 전력 기반 경차(EV 국민경차) 개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지역 자동차부품기업 역량 강화에 나선다.

시는 특히 경형 EV차량 고효율 구동모터 소형화(무게 감소) 기술 개발을 비롯한 경차 안전성 향상을 위한 배터리 보호 고강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전력 기반 경차의 경제성·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미래차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자동차부품기업의 기술지원·새로운 판로 개척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다음 달부터 관련 기관·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경형 전기차 기반 구축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경형 전기차 생산기업과 전기차 전용부품 및 공용부품 개발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기업' 모집도 서두르기로 했다.

광주시의 미래차 전환 정책에 맞춰 자동차 관련 기업들도 기존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에 발 빠르게 대비하고 있다.

실제 국내 최초 전기차 전용 고성능 인휠모터(바퀴휠 내에 구동모터 장착)를 개발한 광주 미래차 전환 자동차부품기업인 '피티지'는 평동산단에 3800평 규모의 공장을 준공하는 등 생산설비를 확대하고 있다.

2020년까지 하락세였던 경차 시장은 운전자 편의시설 및 안전 사양이 추가된 광주 GGM 공장의 '캐스퍼' 출시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EV국민경차 상용화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선정에 앞서 330만㎡(100만평) 규모의 미래자동차 국가산단 유치를 성공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지난 12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미래 자동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유치신청서도 접수한 상태다. 광주시는 미래차 국가산단과 기존 빛그린 국가산단, 진곡산단에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배터리 등 미래 차 산업 분야를 집적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내용을 신청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자동차산업은 지역 제조업 매출의 43.1%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지만, 산업 구조가 내연 기관차로 구성돼 미래차로의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국장은 "민선 8기 광주시가 미래차 전용 신규 국가산단 지정에 이어 미래차 부품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돼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은 물론 기업 집적화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천을 거슬러 오르는 힘찬 잉어떼 수백 마리의 잉어 떼가 20일 광주천에서 물길을 거슬러 오르기 위해 힘차게 팔딱거리고 있다. 최근 날씨가 따뜻해져 수온이 상승하면서 잉어들의 산란철도 빨라지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곡성 29.9도 ... 벌써 여름이 왔나 봄

광주·전남 한낮 기온 '후끈' 황사까지 ... 나들이 주의를

광주·전남에서 갑작스레 더워진 한낮 날씨가 주말인 22일부터 평년기온으로 회복되지만 황사는 여전히 나들이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0일 곡성 낮 최고기온이

29.9도를 기록하는 등 6월 중순 기온을 보였지만 21일부터 점차 평년기온을 회복하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20일 갑자기 높은 기온을 보였던 것은 중국 내륙에서 가열된 더운 공기가 서풍을 타고 유입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1일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낮 최고기온이 5도 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22일 평년 (최저기온 7~11도, 낮 최고기온 18

~22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주말 내내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는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몽골 동부와 중국 북동부에서 발원한 황사가 22일까지 공기 중에 남아 영향을 끼치겠다. 23일에는 기류가 빠져나가지 못한 탓에 황사가 남을 수도 있겠다.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북풍의 영향을 받아 순간 풍속 시속 70km 이상의 강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급격한 기온변화, 황사, 짙은 안개, 강풍 등 봄철 위험 기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기상정보 확인을 당부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尹, 5박 7일 방미 ... 26일 한·미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4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대통령 국빈 방미는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일 오전 용산 정사 브리핑에서 국빈 방미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방미 이틀째인 25일 저녁(이하 미국 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함께하는 일정을 진행한다. 김 차장은 "미측은 정상회담 하루 전인 25일 저

녁 윤 대통령 내외와 바이든 대통령 내외가 함께하는 친교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한미 정상이 이날 워싱턴DC에 있는 한국전쟁기념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방미 사흘째인 26일에는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다. 정상회담에 앞서 오전 백악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맞이하는 공식 환영식이 열릴 예정

이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빈 만찬이 진행된다.

김 차장은 "한미 정상은 26일 백악관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국빈 만찬을 포함해 여러 일정을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에는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을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인권의 공동 가치에 기반한 동맹의 70년 역사를 돌아보고 한미양국이 당면한 도전 과제를 진단하며 앞으로 양국이 함께 지향할 미래 동맹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신안 해상 풍력발전 단지 조성 속도 ▶2면
윤상원열사기념관 사업 주민들이 길 터줬다 ▶7면
복스 - '무예로 조선을 꿈꾸다' ▶14·15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내기 어렵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 2023년 신년사 중 -

